

2027^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2026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표지 안쪽

2027^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2026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구원 수능국어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서편〉 〈언어편〉 〈화법과 작문편〉 집필 (구원 수능국어 간행)

구원 수능국어 못 본 시 해석법 (구원 수능국어 간행)

수능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 언어[문법]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27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일곱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실전모의고사 등의 일곱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언어[문법]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신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배경 지식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단 기간에 지식적 측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례

제1부 언어 문법과 어문 규정	7
------------------------	---

Ⅱ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	---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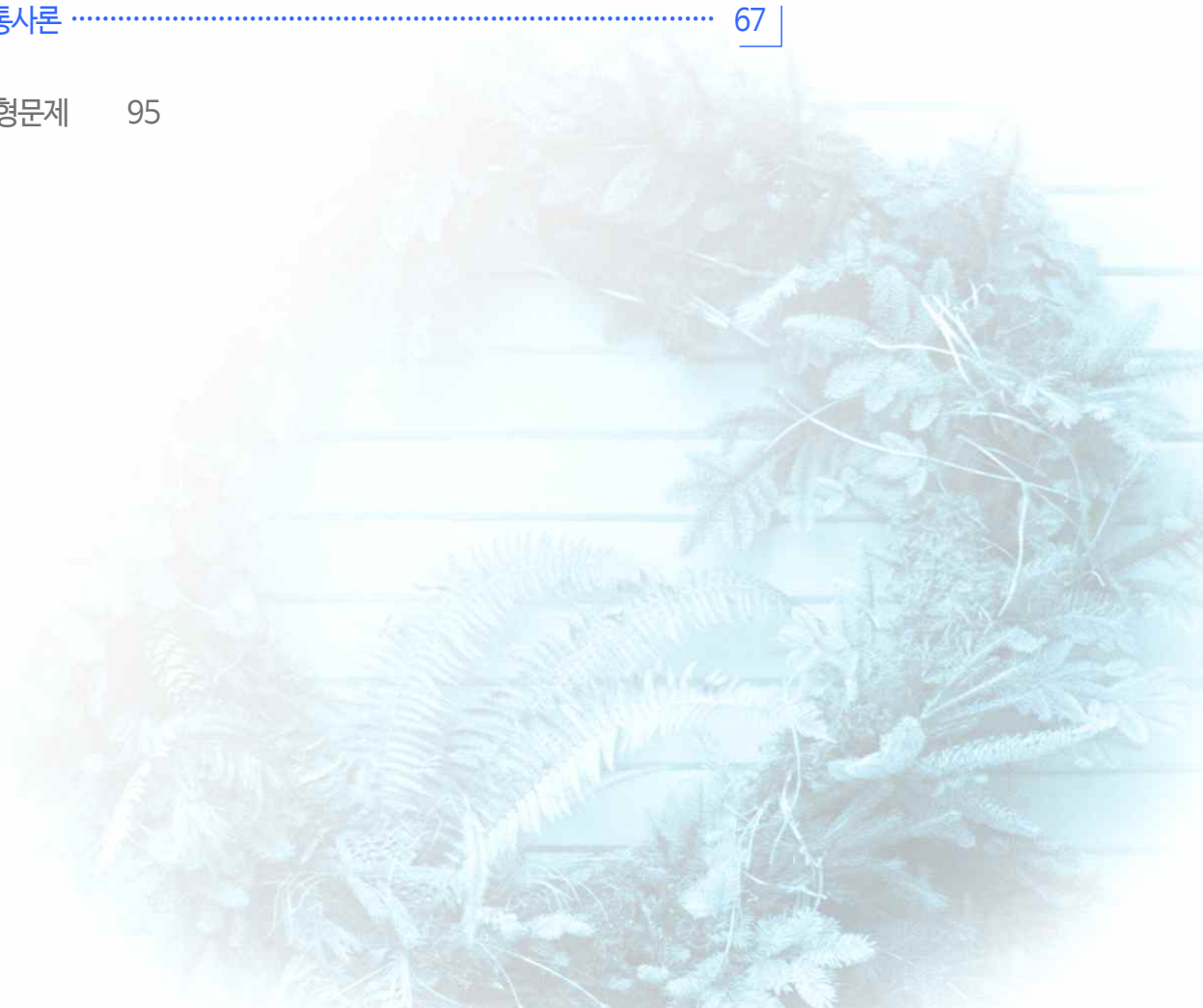
유형문제 33

02. 형태론	36
---------------	----

유형문제 62

03. 통사론	67
---------------	----

유형문제 95



차례

04. 담화와 의미의미 변화국어 생활	100
유형문제	110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114
유형문제	132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136
유형문제	162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170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가. 제1부 언어[문법]과 어문 규정

㉔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출제 경향**

구원 수능국어 **원리**

구원 수능국어 **사고 방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06** 어문규정[예제]

5-2 국어의 변천유형문제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히십시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데 '새해맞이'는 [새(관형사)+해(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맞(동사의 어간)+이(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관형사)+몫(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하(동사 어간)+다(동사 어미)](의미상 서술어)의 형태로 분석되므로 ㉠, ㉡의 두 원리에 부합하다.

● **오답 비루기** '두말없이'는 [두(관형사)+말(후행하는 명사)](의미상 주어)+[없(형용사 어간)+이(부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는 [숨(동사의 어간)+은(관형사형 전성 어미)](관형어)+그림(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찾(동사 어간)+기(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 **해답** ④

나.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제1부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언어[문법]와 어문 규정



☞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은 음소 문자이다. 그렇다면 ‘ㄹ’은 소리일까, 문자일까? ‘ㄹ’은 문자이다. 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 자체는 형식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이다. 예컨대 ‘ㄹ’은 [마]의 초성에서 나는 소리인 양순 비음을 나타내는 형식이고, 내용은 양순 비음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ㄴ’로 소리 [나]를 나타내는데 ‘아’로도 소리 [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비음을 ‘ㅇ’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ㅇ’으로 나타낸 것은 이를 보여 준다.

[illegible]

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jo])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어울러 쓴 모음자 중에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개’와 ‘과’는 각각 ‘i’와 ‘i’, ‘o’와 ‘a’를 어울러 쓴 것인데, ‘개’는 단모음([e])을, ‘과’는 이중 모음([wa])을 나타낸다. ‘기’ 두 개를 어울러 쓴 ‘끼’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 즉 된소리 [kʰ]를 나타내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시’와 ‘기’를 어울러 쓴 합용 병서 ‘지’으로 [kʰ]를 나타냈다.

한편 어울려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려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니’, ‘귀’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는 어울려 쓴 모음자 ‘니’가 단모음, 이중 모음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 이에 비해 이중 모음 [we]는 어울려 쓴 모음자 ‘웨’로 나타내는데, ‘괴’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예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 ‘ ’은 내용은 그대로 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 현대 국어와 달리 ‘ㄱ’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aj])을 나타냈는데, 이는 형식은 그대로이면서 내용이 변한 예이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ㅁ’의 ‘ㅂ’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ㅂ’가 나타내는 소리이다.
- ② 현대 국어 ‘콩’의 ‘ㅇ’과 15세기 국어 ‘콩’의 ‘ㅇ’은 그 내용이 같다.
- ③ 한글 자모 24자 중 자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 ④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24자모의 모음자 3개를 어울려 쓴 것도 있다.
- ⑤ ‘ㄱ’은 ‘ㄱ’, ‘ㅋ’을 어울려 쓴 것이고, 두 종류의 소리를 나타낸다.

● **문항 분석** 제시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자음자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14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

● **오답 비루기** ① ‘문자 자체는 형식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이다.’라는 서술에 비취 볼 때 적절하다. ②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비음을 ‘ㅇ’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ㅇ’으로 나타낸 것은 이를 보여 준다.”라는 서술로 보면 ‘ㅇ’과 ‘ㅇ’은 연구개 비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식은 다르나 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④ 위 지문에서 예로 쓰인 ‘ㄹ’은 모음자 3개 ‘ㄱ’, ‘ㄴ’, ‘ㄷ’ 등을 어울려 쓴 것이다. ⑤ “ㄹ”은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서술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3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훈민정음』(해례본)에는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24자 외에 ‘ㄸ, ㅀ, , .’ 4자가 더 있었다.
- 15세기 국어에서 ‘ㅃ, ㅆ, ㅈ …’의 합용 병서는 초성에서 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의 ‘ㅅ’은 15세기 국어의 ‘ㅅ’과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 자 료 |

	㉠	㉡	㉢	㉣	㉤
15세기 국어	앗겨(← 앓기어)	이뻘	어버시	ㅁ 득	즐기디
현대 국어	아껴(← 아끼어)	입때	아버이	가득	즐기지

- ①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ㅅ’은 현대 국어의 ‘ㅅ’와 형식도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으로 같군.
- ②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ㅃ’은 ‘ㅃ’이 나타내는 소리와 ‘ㅆ’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 ‘ㅃ’의 ‘ㅆ’은 현대 국어의 ‘ㅆ’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
- ③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ㅅ’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멸되었군.
- ④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ㅅ’은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
- ⑤ ㉤을 보니, ‘ㅅ’은 ‘ㅅ’과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르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문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15세기 국어의 ‘ㅃ’은 ‘ㅂ’이 나타내는 소리와 ‘ㅈ’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 이것이 ‘ㅂ’과 ‘ㅈ’으로 분리되었는데 ‘ㅈ’은 현대 국어의 ‘ㅈ’과 형식은 다르나 내용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15세기 국어의 ‘ㅈ’과 현대 국어의 ‘ㅈ’은 둘 다 ‘ㅣ+ㅈ’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형식도 같고 내용도 같다. ③ 15세기 국어의 ‘ㅅ’은 ‘ㅇ’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자와 음가가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15세기 국어의 ‘ㅡ’는 문자 자체가 소멸되었고 음가는 ‘ㅏ’, ‘ㅑ’ 등으로 바뀌었으므로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⑤ ‘즐기디’의 ‘ㅈ’은 <보기>에서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국어 ‘즐기디’의 ‘즐’의 ‘ㅈ’과 형식은 같았으나 그 내용인 음가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 **해답** ②

3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건]

-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
-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

-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다.
-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셨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길어진’은 한 자리 서술어이고, ‘하셨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여기서 ‘-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다. ‘온갖’은 관형사이고 관형어로 쓰였다.

● **오답 비루기** ① ‘편찮으신’은 한 자리 서술어고 여기서 ‘-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다. ‘모셨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며 ‘-시-’는 어간의 일부이지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아니다. 또 ‘세’는 관형사이고 관형어로 쓰였다. ② ‘읽으시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드셨다’도 두 자리 서술어이다. ‘몇’은 관형사이고 관형어로 쓰였다. ③ ‘끊임없는’은 한 자리 서술어이고 관형어로 쓰였다. ‘합격하셨다’도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⑤ ‘파는’은 두 자리 서술어이고, ‘맛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며 ‘다셨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나 ‘다시였다’의 ‘-시-’는 어간의 일부이지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아니다.

✓ **해답** ④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

정원 : 어머, 지수야 안녕?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수 : 응,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이번에 □□ 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

정원 : 아! 맞다, 네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거기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

지수 : 맞아.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원 :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지수 : 응, ㉤그쪽이 대신 기념품 맡는데.

정원 :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기랑 좀 나눠말자고 해.

지수 : ㉦그건 ㉧그래. 근데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그러네.

- ① ㉠과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② ㉢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은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 ③ ㉤과 ㉥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
- ④ ㉦과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 ⑤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어휘의 지시 내용이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은 ‘거기랑 좀 나눠말자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키나 ㉨은 ‘분담하기’란 내용을 가리키므로 나중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를 의미하나 ㉡은 ‘□□ 고등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의미한다. ② ㉢은 ‘곧 돌아올 차례’로 발화시보다 미래를 가리키고 ㉣은 작년을 가리킨다. ③ ㉤과 ㉥은 둘 다 ‘□□ 고등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고,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 **해답** ④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①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② ㉠의 '낮췄다'와 ㉡의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접사, 조사, 어미 등의 용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시작되자'의 형태소 분석은 '시작[명사, 어근]+되[동사를 만드는 되다의 어간]+재[연결 어미]'의 형태이고 '낮췄다'의 형태소 분석은 '낮[형용사 낮다의 어간]+추[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의 형태이다. 이로 보면 두 접미사는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② '낮췄다'는 사동사이나 '빼앗겼다'는 피동사다. ③ '시작되자'는 사동사이고 '말리는'의 형태소 분석은 '마리[사동사 마르다의 어간]+리[사동 접미사]+는[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형태여서 '말리는'도 사동사이다. ④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으나 '친구랑'은 목적어이고 '미술관이랑'은 부사어이다. ⑤ '만나'의 형태소 분석은 '만나[만나다의 어간]+(서 : 생략된 연결 어미)' 형태여서 만나는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가'의 형태소 분석은 '가[가다의 어간]+(아 : 생략된 종결 어미)' 형태여서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 **해답** ①

※ 다음은 학생의 블로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블로그

이 블로그에서 검색

☞ ☰


도서관 상호 대차, 저처럼 실수하진 마세요!

공개 유형: 전체 공개 게시 일시: 2025. 10. 17. 20:32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수행평가에 쓸 책을 구하지 못해 막막했는데, ◇◇ 시립 도서관에서 보낸 '상호 대차' 온라인 알림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상호 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을 클릭해 주세요.

상호대차!

<https://video.lib.△△>


바로 검색했더니 이웃 도시의 △△ 도서관에 찾던 책이 있었어요.

④ 상호 대차를 신청하고 며칠 뒤인 일요일에 도착 문자를 받았답니다!

수령 기간이 '도착 문자 수신일로부터 3업무일 이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업무일'이 뭔지 잘 몰랐고, '로부터'는 당연히 문자 메시지 수신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화요일이 수령 마감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고, 3일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⑤ 도서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서 오늘 내로 신청 도서를 수령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업무일'은 휴관일 제외, '수신일로부터 3업무일'은 '수신일 + 3업무일'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정말 기뻐합니다. :)

자료실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알고 있어 여유 있게 도서관으로 갔지만..., 수령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더라고요. 도착한 건 오후 6시 25분.... 안타깝게도 책을 놓쳤습니다.



(㉔ 결국 그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신청해서 그 주 목요일에야 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 도서관의 누리집을 확인했는데 운영 방식의 큰 틀은 같았지만, 도서관마다 대출 권수나 수령 시간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④ 다음 세 가지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해 봐야지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 '업무일' 계산 시 휴관일은 제외함.

☞ '수신일로부터 ○업무일'의 날짜 계산: 수신일 + ○업무일

☞ 수령 시간과 자료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음.

비록 좀 늦어지긴 했지만, 상호 대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한 곳의 도서관만으로는 원하는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도서관끼리 연결되어 있으니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이용한 것처럼 책을 빌리기 편했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상호 대차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우리 학교 누리 소통망에 게시할 예정이에요. ㉔ 완성되면 블로그에도 올릴게요.

#상호대차 #도서관 #업무일 ♥ 공감 56 💬 댓글 5

13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답니다’를 사용하여, 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 ② ㉡ : ‘-어요’를 사용하여, 신청 도서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문자 발송 주체가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에야’를 사용하여, 책을 수령한 시점이 상호 대차를 재신청한 주의 목요일이었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 : ‘-아야지’를 사용하여, 유의 사향을 확인해 보는 행위가 실수를 하지 않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르게요’를 사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해 블로그에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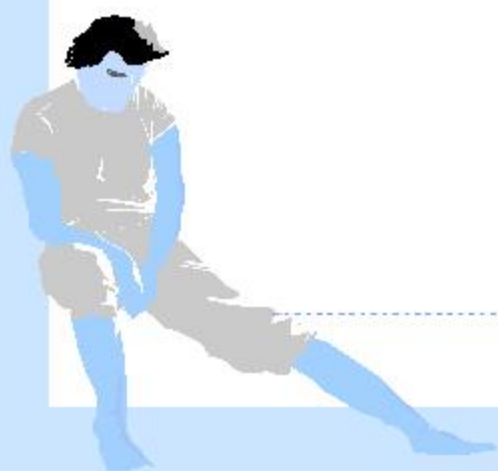
● 문 양 분석 어미나 조사의 활용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어요’는 예사 높임 또는 친근미가 담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였으며, 문장 전체에 신청 도서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문자 발송 주체가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답니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에야’는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의 뒤에 붙어, 그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아야지’는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르게요’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을 부드럽게 말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약속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②

Memo



New Theory & Thinking Method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개념어·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땀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땀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채목이 되고 채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개념어·어휘·크리닉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 예사소리 피열음 ㄴ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ㅇ+ㅣ.....	자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출문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꿈’과 ‘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눈’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ㄱ과 ㄴ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음소]

① 자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인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ㅗ	ㅡ	ㅜ
중모음	ㅔ	ㅛ	ㅖ	ㅠ
저모음	ㅐ		ㅘ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斗]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잎 → [압]
	자음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동화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ㄹ’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 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뒹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솜이불 → [솜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ㄸ, ㅊ,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ㅕ’로 바뀌거나 ‘ㄱ, ㄷ’가 ‘ㅏ, ㅑ’ 앞에서 ‘ㅓ, ㅕ’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 ㄱ → 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ㄴ’과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글	노로	피(산)	섬	넙(넙)		
가획자	콩	뒤(띠)	벌	조히(종이)			
		고티	파	채	부형		
이체자	리홀(바구레)					어름	이스(아우)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톡/ㄷ리	물/그력(기러기)	깃	
초출지	논/벼로	밥	누에	브섬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름(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굼병(굼벥이)	반되(반딧불이)	간(갯)
	범	섬(섬)	жат	별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㉔‘고티’(<고치>)나 ‘덜’(<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㉕‘섬’(<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ㄷ리’(<다리>)나 ‘톡’(<턱>)처럼 ‘·’가 변한 유형, ㉖‘물’(<물>)이나 ‘브섬’(<부익>)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ㄴ’>‘ㄷ’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㉗‘부’(<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㉘‘글’(<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ㅇ’으로 표기함.

01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 덧쌓는[덧짚는] ㉡ 속력도[송녀도] ㉢ 읽었고[일건꼬]
 ㉣ 겉웃만[거둔만] ㉤ 맞붙임[만뿌침]

-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제시된 원리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ㄷ>ㄸ, ㅎ>ㄴ’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변화이다. 따라서 ‘ㅎ>ㄴ’으로 교체되는 것은 조음 위치방법 변화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②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ㄱ>ㅇ, ㄴ>ㄹ, ㄷ>ㄸ’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방법 변화와 조음 위치조음 방법 불변 등이다. ③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ㅈ>ㄷ, ㄱ>ㄲ’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불변이다. ④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ㅌ>ㄷ, ㅅ>ㄴ’ 등으로 각각 조음 위치방법 불변, 조음 방법 변화이다. ⑤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ㅈ>ㄷ, ㅂ>ㅃ, ㅌ>ㅆ’ 등으로 각각 조음 위치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불변, 조음 위치조음 방법 변화이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중성가죽음, 즉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ㅌ’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 ‘중의’(중의)처럼 이어 적기도 하고, ‘중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ㅇ, ㄴ, ㅁ, ㄹ, ㅅ’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일 때 끊어 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다만, ‘뿌늘’, ‘말쓰믈’, ‘우수믈’에서는 이어 적기가 보인다.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ㄷ, ㅂ, ㅅ, ㅇ, ㅅ’을 썼는데, 이 가운데 ‘ㅅ’은 ‘나라 일흠’(나라의 이름), ‘님글 밋슴’(임금의 마음), ‘바를 우희’(바다의 위에)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ㅁ, ㄹ’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상절』은 사잇소리 표기에 ‘ㅅ’을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ㅇ’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촛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

한편 『용비어천가』는 ‘빙’을 가진 ‘ㄷ뵈다’(되다), ‘ㅎ뵈샤’(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ㄷ뵈다’는 ‘ㄷ뵈다’나 ‘ㄷ외다’로 썼고 ‘ㅎ뵈샤’는 ‘ㅎ오샤’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ㄷ외다’, ‘ㅎ오샤’로만 썼다.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설명한 내용에 맞게 사례에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아음 이체자는 ‘ㅇ(옛이음)’으로 ‘러울’로 예시되어 있는데 ‘리’는 초성에 반설음자 ‘ㄹ’을, ‘울’은 종성자에 반설음자 ‘ㄹ’을 쓴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② ‘ㅇ(이음)’은 용자례의 종성에 쓰이지 않았다. ‘콩, 남상, 금병’ 등에 쓰인 종성은 ‘ㅇ(이음)’이 아니라 ‘ㅇ(옛이음)’이다.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는 ‘ㅇ(여린 하음)’으로 후음에 속한다.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브쉽’의 ‘쉽’인데 이는 반치음 이체자 ‘ㅌ’을 초성자로 순음의 가획자 ‘ㅂ’을 종성자로 쓴 것이다.

✓ 해답 ④

03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신 : 꺾]’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 |
|--------------|---------------|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 학교가 크지[크지] | |

학생 :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 **문항 분석**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안겨라’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안-(어간)’, ‘-기(파동 접미사)’, ‘-어라(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에 파동 접사가 결합한 것이어서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푼다’는 ‘푸(어간, ㄹ 탈락)’, ‘-나다(현재 시제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② ‘여름도’는 ‘여름(명사)’, ‘-도(조사)’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맞다. ③ ‘잠가’는 ‘잠그(어간, ㄹ 탈락)’, ‘-다(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ㄹ’과 ‘ㄱ’이 모두 어간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⑤ ‘큰지’는 ‘크(어간)’, ‘-지(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ㅈ’이 어미로 결합된 소리가 맞다.

✓ **해답** ④

04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잎[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화+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제시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받침 ‘ㄱ’을 ‘ㅇ’으로 교체한 것이고, ‘국[국]’과 [궁]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 **오답 바꾸기**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같다.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단일어 ③ 형인 ‘일[일]’과 다르게 ④ 형으로 바뀌었다. ③ ‘함[함]’과 [감]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⑤ 음절 유형이 [화]는 ② 형이고 ‘활[활]’은 ④ 형으로 서로 다르다.

✓ **해답** ④

0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ㅐ	ㅑ	ㅓ	ㅗ
저모음		ㅔ		ㅕ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 ② 2개의 중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문항 분석** 모음의 체계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A]에 제시된 어휘를 최소 대립쌍으로 짝지어 보면 ‘쉬리/소리’에서 ‘ㄱ/ㄴ’, ‘마루/머루’에서 ‘ㅁ/ㅂ’, ‘구실/구슬’에서 ‘ㅣ/ㅊ’이고 ‘모래’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없다. 최소 대립쌍인 ‘ㄱ/ㄴ’, ‘ㅁ/ㅂ’, ‘ㅣ/ㅊ’를 [B]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적용해 보면 ‘ㅏ/ㅑ/ㅓ’의 세 개의 평순 모음을 찾을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에 어긋난다.

✓ **해답** ③

06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흙일 → [흥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 ‘닳는’은 ‘ㄹㅎ’이 ‘ㄹ’로 교체되어 ‘달’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달른’이 된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 ‘흙일’은 ‘ㄹ’이 ‘ㄱ’으로 교체되고 ‘ㄴ’이 첨가되어 ‘흥닐’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흥날’이 된다. 이 때 ‘흙일’의 음운의 수는 ‘흙’이 ‘흙으로’ 쓰일 때 ‘ㄹ’과 ‘ㅊ’이 각각 발음되므로 6이고 ‘흥날’의 음운의 수도 6이다. ㉢ ‘발야구’는 ‘ㄴ’이 첨가되어 ‘발냐구’가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발랴구’가 된다.

✓ **해답** ②

07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
[가]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
[나]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뭇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칙에 알맞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읊고’의 음운 변동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읊고 → 읊고 → 읊고 → 읊꼬’의 형태가 된다. 즉 겹받침 ‘ㅁ’에서 ‘ㄱ’이 탈락되고(나) ‘ㅍ’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어 ‘ㅂ’이 된다.(가) ‘ㅂ’과 ‘ㄱ’이 만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ㄱ’은 ‘ㄲ’으로 교체된다.

● 오답 바꾸기 ① 축약에 해당한다. ② 연음법칙과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해당된다. ③ 파열음의 예사소리로의 교체에 해당한다.(가) ④ 축약에 해당한다.

✓ 해답 ⑤

08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 ‘살피+{어 → [살피]’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ㄷ’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ㅌ’가 된 예이고, ㉣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ㅛ’와 ‘ㄷ’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ㅜ’가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ㄷ’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ㅈ’가 ‘ㅊ’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의 예가 된다. ㉤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ㅈ’가 탈락하는 예이다.

✓ **해답** ③

09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뻘], 잡다 → [잡따]
 ㉢ 놓지 → [노치], 만형 → [마형]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뜯’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뜯’의 ‘ㄷ’이 ‘ㅎ’을 만나 ‘트’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10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뀔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뀐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해답** ②

11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 채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해답 ①



01 <보기>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0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않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달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쌍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 ㉡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1 |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ㄷ, ㄷ, ㅈ, ㅊ’과 ‘ㅎ’이 만나 ‘ㅌ, ㅍ, ㅊ,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 보기 | 2 |

	<u>어간</u>	<u>어미</u>	<u>표기</u>	<u>발음</u>
ㄱ.	낳- +	-고 →	낳고	{나코}
ㄴ.	앓- +	-아 →	앓아	{아나}
ㄷ.	지- +	-어 →	져	{저}
ㄹ.	돌리- +	-어 →	돌려	{돌려}
ㅁ.	오- +	-아서 →	와서	{와서}

- ① \neg ② \perp ③ \sqsubset
④ \exists ⑤ \square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히읇 → [히읇]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 [술례]
④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 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젓히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딱따]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문제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중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싣타]의 ‘ㄱ’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ㄴ’은 비음이다. ④ [잘따]의 ‘ㄷ’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따]의 ‘ㄷ’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항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바꾸기 ① ‘ㅈ’이 ‘ㅉ’으로 교체되었다. ② ‘ㄱ’이 ‘ㄲ’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ㄱ’이 ‘ㄲ’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는 ‘약’이 [낙]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앗’도 [콩냔]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바꾸기 ② ‘복낙’이 [봉낙]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뭇’이 [문]으로 바뀌었다. ④ ‘압’이 [넙]으로 바뀌었다. ⑤ ‘문냔’이 [문넙]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항 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않아'는 [아나]로 발음되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ㅣ'와 'ㄴ'이 만나 'ㄹ'로 축약되었다. ⑤ 'ㅇ'과 'ㅅ'이 만나 'ㅆ'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항 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젓히다'에서는 'ㅈ'이 'ㅎ'을 만나 'ㅊ'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바꾸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ㄷ'인 용언 어간에 안 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발음된다.